

“돈 300냥이면 살 수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편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4일 혁명기념관서 특별전 유족들이 소장하다 기증...실물 공개는 이번이 처음

“어머님께 올립니다. 제편하고 모자 이별 후로 소식이 서로 막혀 막막하였습니 다. 남북으로 가셨으니 죽은 줄만 알고 소 식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돈 300여 냥이 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 람을 보내니, 어머님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주시오. 1894년 12월28일 달문 상 서.”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번역문)

민중의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4일부터 11 월 17일까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우리 곁의 동학농민군 이야기’라는 주 제로 기획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44 명과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증 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했다.

전시구성은 1부 ‘살과 죽음’, 2부 ‘남겨 진 편지’, 3부 ‘그날의 기억’, 4부 ‘다시 피 어나는 희망’ 등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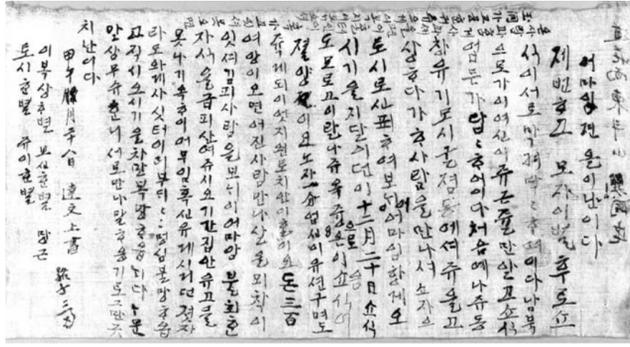
주요 전시 유물은 1894년 늦은 가을 동 학농민군 유광화가 고향에 있는 동생 유광

팔에게 보낸 한문 편지인 동학농민군 유광 화 편지(후손 김순덕 기증), 나주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약한 한달문이 나주초 토영으로 압송된 후 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인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후손 한 우회 기증) 등이다.

유물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 이 소장하고 있다가 기념관에 기증한 것으 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 전시가 처 음이다.

또 이 유물들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몇 안 되는 기록으로, 동학농민군의 합리적인 군수물자 조달 과정, 전투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실상, 동학농민군의 육중 생활을 비롯한 당시의 사회상 등을 엿볼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외에도 동학농민군 김우백 관련 경통 과 동학농민군 김학두 궤, 동학농민군 황 종도 창, 동학농민군 박윤중 천인장 등 유 족들이 기증한 가치 높은 유물이 전시된 다.



나주지역서 활약한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1894년, 한우회 기증)

또한 남원과 임실지역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약한 이후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순국한 순국한 동학농민군 김영원의 관련 유물들(후손 김강식 기증)과 경북 예천 지 역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인 갑오척사록(충남대 도서관 기증) 등도 공개된다.

이행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 사적 순간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스러 져 가야했던 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을 돌아보고, 그 사건이 한 가족에게 어떠 한 생채기를 남겨야했는지 그 이면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 다.

한편 24일 오후 3시에 동학농민혁명 참 여자의 유족들에게 유족등록통지서를 전 달하는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 전시실에서 유물기증자 감사패 전달식이 열린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강진향교, ‘인성·예절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10월까지 초·중학생 대상

강진향교가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성·예절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진향교는 오는 10월30일까지 전남 도교육청 후원으로 강진향교에서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 다.

프로그램은 지역 18개 초·중학생을 대 상으로 유교의례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인성·예절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지난 17일 첫 시간에는 군동초등학교 전교생 42명이 참여해 예절교육을 받았 다.<사진>

최재남 강진향교 전교는 “각종 청소년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인성 및 예 절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교육은 향 교전학과 한복 입고 전통차 마시기, 전통 예절 실습 등 체험학습위주로 실시된다” 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순천시 마그네슘클러스터 조성 ‘숨통’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 국비 18억원 반영

순천시는 해룡산업단지 전남테크노파 크 생산동에 들어설 마그네슘상용화지원 센터 구축 사업에 국비 18억4000만원이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순천시는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중 앙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과학기술부의 기술성 평가에서 부적 합 판정을 받아 난항을 겪었다.

포스코가 적자를 이유로 마그네슘 판 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서면서 대 통령 공약사업으로 기대가 높았던 마그 네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위기를 맞았 다.

허석 순천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을 두 차례 면담하고 국고 확보에 나섰 다.

순천시는 내년에 장비 구축과 기술지 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용화지원센터 구축에 참여할 국내 마그네슘 관련 기업 2곳을 유치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신소재기술산업과 지원센터 에서 설명회를 열고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는 마그네슘 클러스터의 중추 시설로 내년부터 2023 년까지 국비 80억원 등 모두 1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진도 의신면 칠전마을 ‘치매안심마을 1호’ 지정

진도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 고 생활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 다.

진도군은 최근 의신면 칠전마을을 진 도군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안심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본격적 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 역주민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

활에서 불편함이 없이 지낼 환경을 조성 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은 작업치료사 를 투입해 신체기능 증진활동, 원예치 료, 음악치료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 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헤아림 교실 등이다.

군은 최근 진도를 진도노인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 을 개최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 어치 발행한다

군, 자금 역외유출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가맹점 가입 독려

순창군이 지난 1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순창사랑상품권 발행(8월 1일)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 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가졌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해 한국조폐공사 황문규 기술해외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류(종이) 방식과 모바일 상 품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군민, 골목상권 편익을 위한 체계적 유통

시스템 구축에 앞장선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자금 역외방출 방지 와 지역 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간 10억 규모의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관 내 사업장을 일일이 돌며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전체 대상 사업장의 50% 정도가 가맹점 등록을 마쳤으며, 군은 읍 면 사무소 직원들과 협조해 발행일까지 가 맹점 등록률 100%에 도전할 방침이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

또 상품권 할인율을 평시 7%, 명절에는 10%까지 확대해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 1회 5만원 이상(3개 업소 이상) 사용 할 경우 사용금액 10%를 상품권으로 돌려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 중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조폐공사와 협 약을 통해 상품권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 다.

한편 순창군은 8월 1일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군청 경제교통과와 읍면 사 무소(산업계)를 통해 가맹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익산시, 시민 이동편의 증진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추진

익산시가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 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익산시는 도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 통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 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시민 공모를 추진해 소규모 주차장을 올해 연말 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폐가나 유휴 지 등을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또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행복콜버스’를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

시는 차량구입비 1억5000만원과 운영 비 등 총 4억원을 투입해 15인승 승합차 2 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 300원이다. 대상지는 여산면 일대 대중교통 소외지 역 21개 마을과 벽지 3개 노선이다.

이와 함께 익산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일일 9회에서 15회로 확 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